

# '추천도서목록'에 관한 소고小考 책 선정 이전에 좋은 책 철학부터 키워라

남미영\_한국독서교육개발원 원장

## 불투명한 '추천도서목록'...신뢰성과 공정성 결여

2004년 5,000만 원을 들여 학교도서관을 꾸민 한 초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다. 학교장과 도서관을 둘러보면서 나는 도서선정 기준이 궁금했다. 언뜻 보기에 그 도서관의 책들은 신간 중심, 베스트셀러 중심에 현직교사 저서가 유난히 많았다. 선정기준을 묻는 나에게 교장선생님은 매우 민주적인 선정방식을 이야기했다. 교사들은 20권씩, 학부모는 2권씩, 학생들은 3권씩 책을 추천하게 해서 그 책들을 종합화하여 추천 빈도가 높은 책부터 사들였다고 했다. 정말 언뜻 보기에는 매우 민주적인 방법 같았다.

교사 한 분에게 추천한 20권을 다 읽어보았느냐고 질문했다. 그분은 5권만, 그것도 어린시절에 읽었고, 15권은 학교에 무료로 배달되어온 추천도서목록에서 골랐다고 했다. 그 목록을 보았더니 어느 시민단체에서 만들어 학교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추천도서목록이었다. 도서목록을 만들어 전국 학교로 무료 우송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 텐데, 시민단체가 어떻게 그것을 충당하고 있는지 걱정이 앞섰다.

이 학교가 만든 도서관의 경우, 두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째는 도서선정이 교육적 배려 없이 인기 중심으로 선정되었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인지발달과 심리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그 시절에 꼭 읽어야 할 책을 선정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학교도서관이 책을 선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런데 그런 교육적 배려 없이 인기위주로 책을 고른 점은 교육적 사명을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두 번째 문제는 책을 읽을 대상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연구 없이 책이 다른 세력의 주관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그 학교 학생들의 독서능력이나 독서이력을 조사하여 그에 맞는 도서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타 세력의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에 학교도서를 맡겼다는 점이다.

## 교과별 선정도서목록, '단원내용 무관한 양서 배제'

2003년 독서새물결교사모임이 교과별 도서목록을 만든 이후, 크게 유행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의 도서목록, 서울시교육청의 도서목록도 교과별 도서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

교과별 도서목록의 원래 취지는 얇은 교과서 한 권만으로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폭넓은 교과지식을 충분히 담을 수가 없고, 교과공부에 필요한 사고력을 기르는 데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도서를 선정하여 교과서 이해를 돕는다는 목적을 가진다.

이런 목적을 가진 교과별 도서목록은 원천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한계는 교과서의 단원내용과 관련이 없는 도서들은 그 책 자체의 역사나 우수성과는 관련 없이, 또는 인지발달이나 심리발달을 돕는 책의 기능과는 관계없이 목록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인류의 정신적인 재산인 고전과 명작들의 대다수는 교과별 도서목록에 자리가 없다. 마치 '대어는 빠지고 송사리만 걸리는 그물'인 셈이다. 이런 도서선정 기준은 신뢰성과 합리성에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 문제는 독서교육의 목적을 오도한다는 데 있다. 교과별 도서목록은 학습의 보조자료이지 독서운동이나 독서교육을 위한 필요충분 자료는 아니다. 그런데도 학교도서관은 교과별 도서목록 위주로 도서관을 채우는 예가 많다. 도서총관은 교과별 도서목록을 패키지화하여 납품하는 곳이 많다. 이렇게 되면 학교도서관은 정신적인 고향이 아니라 학습자료 보관소가 된다. 독서운동과 독서교육에 적신호가 아닐 수 없다.

## 독서운동은 즐겁고 행복한 독자 만들기 프로젝트가 돼야

독서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즐겁고 행복한 독자만들기가 기획돼야 한다.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은 인기위주로 읽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 아니라, 독자가 지적쾌감을 느끼고 각성의 단계에 이를 때

발생하는 독자심리를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도서 선정의 철학과 기준이 필요하다.

### 1) 좋은 책에 대한 철학이 정립되어야 한다.

좋은 책이란 일반적인 조건과 개별적인 조건을 포함한다. 일반적인 조건이란 언제, 어디서나 좋은 책으로 인정받아온 조건들로서 교육선진국에서 어린이·청소년 도서를 선정할 때 사용하는 잣대이다. 예를 들면 세월의 벽을 허물고 존재해 오는 명작과 같은 영원하고 보편적인 가치관이 담긴 책, 평범한 어린이가 훌륭한 인간으로 자라나는 동기가 담긴 이니시에이션스토리(Initiation story), 전래동화와 같이 삶의 방식을 스스로 찾아내는 탐색 스토리,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상승모티브, 많은 생각을 유도하는 함축적인 문장의 책, 톡톡 건드리지만 해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쏟아질 것만 같은 궁금증을 유발하는 발단, 읽고 나서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열린 결말, 옆집에 살던 친구보다 더 친근하고 더 나를 성장시켜주는 생생한 인물이 살고 있는 책 등이 그것이다. 일반적인 조건은 책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개별적인 조건이란 책을 읽을 대상에게 좋은 책을 말한다. 감기약은 감기든 사람에게만 좋은 약이지 배 아픈 사람에게는 좋은 약이 아니듯이 책도 개별적으로 필요한 책이 있다. 좋은 책의 개별적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책을 읽을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개별적인 독서이력서 쓰기, 독서능력진단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독서이력서 쓰기는 이제까지 읽은 책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이 조사는 독자가 이제까지 읽은 책의 종류, 읽기 방법 등을 알 수 있다. 이 방법은 개별 독자들이 판타지를 주로 읽었는지, 위인전을 주로 읽었는지를 알 수 있어서 차후의 도서선정의 방향을 정하는 데 합리적인 기준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읽은 책의 제목은 많은데 주인공이나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따라 책을 대충대충 읽는지, 정확하게 읽는지가 나타나게 되어 독서교육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독서능력진단은 독서과정에서 필요한 어휘력, 문장 이해력, 분석력, 종합력, 상상력, 추리력, 비판력, 판단력,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진단하는 과정으로, 이 진단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어떤 수준의 책을 제공할 것인지를 알게 된다. 이런 진단결과는 어휘력이 낮은 아이들에게 제공할 책, 상상력이 낮은 아이들에게 제공할 책을 선정할 기준을 제공하게 된다.

### 2) 다양하고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필요하다.

많은 학교나 위원회에서 '추천도서목록'을 발표한다. 그러나 그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거나 세인의 주목을 끈 예는 극히 드물었다. 대다수의 추천도서목록은 발표되자마자 사장되기도 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한마디로 추상적인 기준에 의해 선정된 책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찾는다. 목이 마를 때는 시원한 물 한 잔을 찾고, 배가 고플 때는 밥을 찾는다. 책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자신과는 거리가 멀어 보

일 때 독자는 구미가 당기지 않는 법이다.

많은 독자에게 인기 있는 추천도서목록이 되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을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세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독서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책들, 감성능력(EQ)을 길러주는 책들,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책들 등이 그 예이다. 독서능력을 길러주는 책에는 품위 있는 고급 어휘력을 길러주는 책, 분석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책,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책, 상상력을 길러주는 책 등으로 나누어 선정한다면 훨씬 가깝게 느껴질 수 있다.

감성능력을 길러주는 책을 정의감을 길러주는 책, 동정심을 길러주는 책, 인내심을 길러주는 책, 용기를 길러주는 책 등으로 나누어 선정할 수 있다.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책에는 부모님이 미워질 때 읽는 책, 학교가 싫어질 때 읽는 책, 친구와 싸우고 싶을 때 읽는 책, 남의 물건이 탐날 때 읽는 책들로 나누어 선정할 수 있다.

### 3) 수준별, 단계별 도서목록이 필요하다.

독서운동이 성공하려면 독자가 즐겁고 행복해야 한다. 독자가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면 그 독서운동은 아무리 훌륭한 준비를 한다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즐겁게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은 부모님이나, 선생님만의 소망은 아니다.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즐겁고, 행복하고 자발적으로 독서하고 싶어한다. 일부러 부모님이나 선생님 속을 썩이려고 책을 안 읽는 아이들이란 없다. 읽을 능력이 부족하여 책읽기가 싫어진 아이들이 있을 뿐이다.

한국독서교육개발원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전국 초등학교 50만 명의 독서능력을 진단한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 어휘력, 이해력, 비판력이 낮은 학생군이 책읽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런 아이들일수록 책을 보면 머리가 아프다고 한다. 이것은 그 아이들이 선천적으로 읽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능력이 낮아서 책읽기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독자를 위하여 단계별 도서목록이 필요하다. 단계별 도서목록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책부터 골라 읽을 필요도 있지만, 한 계단씩 올라가는 재미도 있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어서 지속적인 독서를 할 수 있게 해준다.

### 4) 선정과정의 신뢰성,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도서선정은 학생들이 먹을 양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이런 작업을 내가 좋아하는 책,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 나와 친분 있는 출판사의 책으로 채우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가장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개인의 주관적인 취향이나 판단이 아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면 주관적인 취향과 판단은 작동할 수가 없게 된다. 그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제도의 잘못이었다. 객관적인 기준이 없던 시절에 저질러진 오류였다. ❏